

I. 상담실적

- 상담기간: 2026. 8. 14.(금) 07:00 ~ 2026. 8. 17.(월) 22:00
- 상담건수: 1,348건

II. 주요의견 내용

○ 방송 호평(1명)

-프로그램명 : 「광복절 기획 아침마당」

-방송일시 : 2026. 8. 14.(금) 1TV (08:25-09:30)

무궁화가 법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관습적으로 정해진 국화라는 사실을 이날 방송을 통해 알게 되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잘 몰랐던 정보나 새롭게 알 수 있는 내용을 방송에서 자주 다뤄주기 바란다.

○ 출연자 제언(5명)

-프로그램명 : 「살림하는 남자들-광복절 기획」

-방송일시 : 2026. 8. 15.(토) 2TV (21:20-22:40)

박서진 씨와 가족의 출연이 자주 이어지면서 마치 박서진 씨를 위한 프로그램처럼 느껴진다. 같은 출연자의 모습이 반복적으로 소개되다 보니 다소 식상하다. 다른 출연자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프로그램에 새로운 재미와 유익함을 더해주기 바란다.

III. 청원현황

- 신규청원
 - 2건.
- 이슈청원 및 특이사항
 - 없음.

※ 참고: KBS홈페이지->시청자권익센터->시청자청원(<http://petitions.kbs.co.kr>)

IV. 일일 상담내용

1. 상담실적 : 총 1,348건

○ 형태별 분류

전화	인터넷	우편·FAX	방문	ARS ¹⁾	계
738	27	-	-	583	1,348

○ 채널별 분류

1TV	2TV	라디오	DMB	인터넷	非채널	계
666	510	13	-	-	159	1,348

○ 내용별 분류

의견제시	단순문의	기타	계
285	1,063	-	1,348

○ 분야별 분류

방송	기술	경영	기타	계
1,134	7	71	136	1,348

시청자 의견	문 의
【편 성】 ○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 - 후속 방송 요청 【시사·교양】 ○ 「광복절 기획 아침마당」 - 방송 호평 ○ 「TV쇼 진품명품」 - 진행자 호평 【연예·오락】 ○ 「살림하는 남자들-광복절 기획」 - 출연자 제언 ○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 출연자 제언 ○ 「1박 2일」 - 출연자 제언 【드라마】 ○ 일일드라마 「욕망의 덧」 - 방송 호평 【라디오】 ○ 「뉴스레터K」 - 출연자 제언	【방 송】 ○ 「6시 내고향」 - ‘활어회’ 연락처 문의 85건 ○ 「불후의 명곡」 - ‘방청’ 문의 61건 ○ 「2TV 생생정보」 - ‘동태탕’ 연락처 문의 37건 ○ 「가요무대」 - ‘방청’ 문의 25건 ○ 「전국노래자랑」 - ‘출연자’ 문의 22건 【기 술】 ○ 「난시청」 문의 6건 ○ 「주파수」 문의 1건 【경 영】 ○ 「홈페이지」 문의 46건 ○ 「프로그램 구입」 문의 19건 ○ 「수신료」 문의 4건 ○ 「견학」 문의 2건 【기 타】 ○ 한전 문의사항 포함 136건

1) ARS 항목 상세내용: 제보, 홈페이지문의, 프로그램 구매문의, 출연자 및 출연업체 전화번호 안내

2. 프로그램별 의견

의견	세부내용
[편 성]	
후속 방송 요청	○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 (5명) - 2015. 1. 3.~2026. 6. 27.(토) 1TV 방송. (총 577부작) - 몸이 좋지 않아 시청하지 못하다가 오랜만에 들어보니 다른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있어 중영된 것을 알았다.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그 외 연령층도 많이 좋아하고 시청했던 프로그램이었는데 중영되어 아쉬움이 크다. 다시 방송되길 바란다. ※의견제시자 : 익명 외
[시사 · 교양]	
방송 호평	○ 「광복절 기획 아침마당」 (1명) - 2026. 8. 14.(금) 1TV (08:25-09:30) - 무궁화가 법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관습적으로 정해진 국화라는 사실을 이날 방송을 통해 알게 되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잘 몰랐던 정보나 새롭게 알 수 있는 내용을 방송에서 자주 다루주기 바란다. ※의견제시자 : 익명
진행자 호평	○ 「TV쇼 진품명품」 (1명) - 2026. 8. 16.(일) 1TV (11:10-12:00) - 홍주연 아나운서는 이 프로그램에 참 잘 어울린다. 착용하는 의상도 품위 있게 느껴져 보기 좋다. 고풍스러운 분위기의 외모와 뛰어난 말솜씨로 프로그램을 한층 더 빛내주는 홍주연 아나운서를 칭찬하고 싶다. ※의견제시자 : 익명

의견	세부내용
[연 예 · 오 략]	
출연자 제언	○ 「살림하는 남자들-광복절 기획」 (5명) - 2026. 8. 15.(토) 2TV (21:20-22:40) - 박서진 씨와 가족의 출연이 자주 이어지면서 마치 박서진 씨를 위한 프로그램처럼 느껴진다. 같은 출연자의 모습이 반복적으로 소개되다 보니 다소 식상하다. 다른 출연자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프로그램에 새로운 재미와 유익함을 더해주기 바란다. ※의견제시자 : 익명 외
출연자 제언	○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1명) - 2026. 8. 16.(일) 2TV (16:40-18:10) - 아무리 갑과 을의 내용을 담고 있더라도 직원에게 ‘야’, ‘너’와 같은 호칭을 사용하는 박미희 씨의 모습은 부모의 입장에서든, 직장인의 입장에서든 보기 불편했다.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언행이 웃음의 소재로 소비되어서는 안 된다. 방송에 출연했다면 적어도 상대방을 부르는 호칭만큼은 신중하게 사용해 주기 바란다. ※의견제시자 : 박**
출연자 제언	○ 「1박 2일」 (1명) - 2026. 8. 16.(일) 2TV (18:10-20:00) - 딘딘 씨가 문제를 잘 풀지 못한 멤버들에게 ‘바보’라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했다. 문제를 가장 많이 맞혔더라도 다른 멤버들을 배려해 말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 재미도 중요하지만 아이들도 함께 시청하는 공영방송 프로그램인 만큼 언어 사용에 신경 써주기 바란다. ※의견제시자 : 익명

의견	세부내용
[드라마]	
방송 호평	○ 일일드라마 「욕망의 덧」 (1명) - 2026. 8. 14.(금) 2TV (19:50-20:30) - 첫 회부터 시청했는데 장서희 씨의 연기가 좋고 출생의 비밀을 둘러싼 내용도 흥미롭다. 시청자들이 재미있게 보고 있다는 의견 전해주기 바란다. ※의견제시자 : 익명
[라디오]	
출연자 제언	○ 「뉴스레터K」 (1명) - 2026. 8. 13.(목) 1R (17:05-19:00) - 이날 출연한 패널들의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 다소 일방적이고 과하게 느껴졌다. 서로 다른 입장의 패널을 균형 있게 섭외해 공영방송으로서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주기 바란다. ※의견제시자 : 익명